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토종 브랜드 제과점 잇따라 입점

광주 베비에르 이어 전북 풍성제과 진출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전북 익산의 토종 브랜드인 '풍성제과'가 최근 백화점 지하 1층 식품관에 입점했다고 31일 밝혔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지역 토종 브랜드 제과점이 잇따라 입점했다. 지난달 31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전북 익산의 유명 빵집

'풍성제과'가 최근 지하 1층 식품관에 입점했다. 풍성제과는 전북 익산에 위치한 작은 동네 빵집으로 동네 빵집들이

최근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30여 년 이상 고집스레 지켜온 맛과 품질로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

TV 프로그램 '생활의 달인'에 출연하면서 전국구 맛집으로 유명세를 탔다.

지난 2014년에는 광주지역 한도 브랜드 빵집인 '베비에르'가 입점했다. 베비에르는 현재 롯데백화점 광주점에서 연 19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베비에르는 백화점 성공에 힘입어 2015년 4월에 아울렛수원점, 2016년 12월에 아울렛남양주점에 연이어 입점했다. 2017년 기준으로 각각 연 14억원, 13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영업부 이준호 식품바이어는 "최근 백화점 식품관의 트렌드는 경쟁력 있는 지역 토종 브랜드를 발굴하는 것이다"며 "베비에르의 성공에 따라 지역 맛집들도 백화점 입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서민금융상품 '햇살론'

온라인·앱으로도 신청

이달부터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 앱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정책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서민들에게 더 낮은 금리로 금융지원을 하고, 이용 편의성도 높이기 위해 햇살론에 온라인 대출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보다 대출원가가 절감되면서 금융회사 청구에서 취급하는 경우보다 약 1.3%포인트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금융회사 영업시간 중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약정 등의 절차도 온라인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대출 실행기간도 단축된다.

대상은 햇살론 자격조건인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를 충족하면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자격확인(소득·재직)이 가능한 저소득·저신용자다.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3개월 이상 재직 및 직장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뉴스스

금호타이어 생산직 희망퇴직자 모집

광주·곡성·평택공장 대상 오는 6일까지...최대 191명

경영 정상화 방안을 놓고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는 금호타이어가 생산직 희망퇴직자 모집에 들어갔다.

지난달 31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전남 노사 교섭 과정에서 사무직에 이어 광주·곡성·평택공장 생산직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오는 6일까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다.

사측은 희망퇴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 등 관련 내용을 공고하고 18년 이상 근속근무자는 18개월분 임금을, 10년 미만 근속근무자는 10개월분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사측이 노조에 전달한 희망퇴직을 포함한 '경영정상화계획(자구 계획안)'에는 최대 191명의 생산직 근로자를 희망퇴직 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자구 계획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날 오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금호타이어 구조조정 저지 광주지역공동대책위'와 함께 구조조정 중단과 체불임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생산직 희망퇴직자 모집은 구조조정과는 무관하다"면서 "사무직도 지난해 말에 희망퇴직에 대해 진행한 바 있고, 생산직도 현장에서 순수하게 희망퇴직을 원하는 근로자들이 있어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명백한 것은 1명을 하더라도 희망퇴직에 한해서만 희망퇴직을 받는다"며 "희망퇴직에 대한 왜곡이나 확대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지역공감·미래창조·정통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만능통장' 일임형 ISA 누적수익률 8.7%

1년간 6배 급증...위험도 높을수록 성과 좋아

< MP 수익률 현황 (단위: %) >

구분	17. 1월말	3월말	5월말	7월말	9월말	11월말	12월말
누적 수익률	2.08	3.30	5.33	6.55	6.77	8.63	8.69
증권	2.69	3.97	6.19	7.55	7.81	9.94	9.98
은행	1.01	2.15	3.87	4.87	5.03	6.44	6.58
1년 수익률	-	-	4.90	4.95	4.93	8.09	7.13
증권	-	-	5.46	5.48	5.48	8.87	7.62
은행	-	-	3.74	3.90	3.98	6.75	6.30
6개월수익률	0.49	1.51	4.82	4.39	3.32	3.01	2.59
증권	0.73	1.75	5.23	4.70	3.60	3.36	2.76
은행	0.01	1.09	4.12	3.87	2.84	2.44	2.30

지난해 증시 활황에 힘입어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누적수익률이 8%를 넘어섰다.

지난달 3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출시 3개월 이상 경과한 총 203개 일임형 ISA 모델포트폴리오(MP)의 누적수익률은 평균 8.7%로 집계됐다.

최근 1년 수익률은 7.1%로 시중 정기예금 금리(1.96%)보다 약 3.6

배 높았다. 2016년 3월 첫선을 보인 ISA는 도입 첫해인 2016년 말에는 수익률이 1.5%에 그쳤지만 연 만에 수익률이 6배 이상 급증했다.

유형별 평균수익률은 초고위험이 17.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고위험 12.6%, 중위험 7.5%, 저위험 3.8%, 초저위험 2.2% 등의 순으로 위험도가 높을수록 성과가 좋았다.

회사별로는 NH투자증권이 평균 16.5%의 누적수익률로 1위를 기록했다. 키움증권 13.0%, 신한금융투자 11.6%, 메리츠증권 11.6%, 현대차투자증권 10.9% 등도 양호한 성과를 냈다.

은행권에서는 대구은행이 평균 9.0%의 누적수익률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이어 우리은행 7.6%, KB국민은행 7.4%, NH농협은행 7.1%, 광주은행 7.1% 등의 순이었다.

나석진 WM서비스부장은 "일임형ISA 수익률이 평균 8%대로 높아지면서 '절세'와 '투자수익'의 1석2조 효과를 노리는 투자자의 관심이 늘어났다"며 "출시 1년 9개월이 지나면서 MP별 수익률 격차가 커지는 만큼 1년 이상 꾸준한 성과를 기록한 상품을 찾아 가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뉴스스

기아차, 차세대 엔진 적용 '올 뉴 K3' 이달 내 출시

고연비·실용성·친환경 등 3대 과제 중점 개발



기아자동차가 신규 개발한 차세대 엔진 및 변속기를 2월 출시 예정인 글로벌 준중형 세단 '올 뉴 K3'에 최초로 탑재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기아차는 올 뉴 K3에 고연비, 실용성, 친환경 등 3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신규 개발한 차세대 파워트레인 '스마트스트림 G 1.6' 가솔린 엔진과 '스마트스트림 IVT' 변속기를 처음으로 적용한다.

올 뉴 K3는 이 같은 엔진과 변속기의 조합을 통해 동급 차급을 뛰어넘어 경제급 연비에 준하는 수준인 15.2km/l를 공식 인증받았다. 기존 K3 가솔린 모델에 비해 10% 이상 대폭 개선된 수치다.

기아차는 지난 5년동안 자동차 제조기술의 근간인 엔진 및 변속기의 글로벌 기술 리더십 확보를 위해

차세대 파워트레인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차세대 파워트레인은 실 연비 개선, 실용성 향상, 배출 가스 저감 등을 목표로 개발됐다.

이번에 올 뉴 K3에 탑재될 G 1.6 엔진은 제원 최적화로 기본 연비 향상 및 기술 확장성에 유리하도록 설계됐다. 다양한 연비 신기술도 활용됐다.

먼저 현대·기아차가 독자 개발한 듀얼 포트 연료분사 시스템(DPFI)이 적용됐다. 듀얼 인젝터를 통해 연료 분사 시기와 분사 비율을 최적화한 다양한 분사전략을 구사해 기존 싱글 인젝터 대비 연소 효율을 대폭 개선했다.

스마트스트림 IVT 변속기는 운전자의 의도와 주행 상태에 따른 다양한 변속 모드를 구현해 변속 응답

성, 직결감 등 주행 품질을 제고했다.

먼저 운전자가 변속을 체감할 수 있는 AT 모사 변속 패턴과 매뉴얼 모드를 적용해 자동변속기(AT)나 듀얼 클러치 변속기(DCT)와 유사한 느낌의 빠른 변속감을 구현했다. 엔진 속도 상승에 비례하는 가속감을 전달하는 선형 가속감 로직도 적용됐다.

스마트스트림 IVT 변속기는 변속 수행 부푼 벨트에 고효율 금속 체인 벨트를 적용해 미모 내구성을 강화시키고 전달 효율이 우수한 체인 형태 적용으로 연비가 개선됐다.

또 변속기의 유압 조절을 위한 유량 공급장치에는 메인 타이 펌프를 적용해 소음이 줄어들면서도 효율성과 내구성은 향상시켰다.

외관도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지난달 15일 열린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는 '리틀 스티어'라는 호평까지 받았다.

올 뉴 K3의 실내공간은 크롬 가니쉬를 적용한 센터페시아를 통해 와이드한 디자인을 강조했다. 또 플로팅 타입의 내비게이션과 원형 사이드 에어벤트를 통해 스타일리시함을 대폭 강화했다.

한편 '업스케일 다이내믹 세단' 콘셉트로 개발된 올 뉴 K3는 2012년 출시 후 6년 만에 선보이는 2세대 풀체인지 모델로 2월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

뉴스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